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음 5월 20일) 제18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시 “부영 임대료 일방 인상, 법적 대응 방침”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지 않아... 정치권에 법 개정도 요청”
부영, “임대조건 변경시 법안 근거해 인상을 결정할 것”

전주시가 물가상승률과 주변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을 울리는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도 꾸준히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가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를 고려해 해당 임대아파트에 2.6%의 임대료 인상을 권고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해마다 임대료 인상 회포를 입삼고 있는 (주)부영을 전주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을 권고 사항 미이행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주)부영은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꾸준히 인상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차 재계약 당시 (구)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2차 재계약 당시에도 시와 임차인 측이 요구한 임대료 동결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복리시설 확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5%를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추진한 후 시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사업자인 (주)부영 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하 조정토록 2회에 걸쳐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고발 조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원시와 여수시, 목포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공동대응에 나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가칭)부영회포 대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주택 사업자의 회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건의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건의와 공론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확충과 하자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통 해결에도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의 이 같은 방침에 부영 관계자는 “하가지구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다”며 “전주시가 2.6%의 근거로 제시한 LH·전북개발공사는 건설목적과 입지여건도 달라서 비교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임대조건 변경시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 후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며 “전주시의 고발조치는 과도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갈등을 빚어온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그간 수차례의 간담회 및 분사 방문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요구해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해 전주시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 결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인재용 기자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송하진 도지사(통합방위협의회 의장)는 13일 오후 2시 제35보병사단에서 '2017년 제2차 전북도통합방위 회의'를 갖고 민·관·군·경이 다 함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2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통해 전문가 양성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금운용본부 전복 이전 따라 수익·안정성 보장 위해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13일,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의 전복 이전을 계기 삼아,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서 그 운영 규모는 2015년 512.3조원, 2016년 568.3조원, 2017년 2월 말 기준 564.5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17년 말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운용자금규모를

608.5조원으로 전망하는 등 그 규모와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직을 확대채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만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 부문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준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국민

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560조 원의 세계 3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3월 전복으로 이전했다”며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급 인력 수급과 연기금의 수익성·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희망인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4면 - 전주대사슴들이 명성 되찾는다

“군산항 활성화 국가 차원서 대책을”

군산시의회, 결의안 채택

군산시의회는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우민 의원(아 선거구)은 21세기 항만물류산업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물류활동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등 항만도시의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입 화물의 99.8%를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며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을 시급하게 해결하여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자동차 환적으로 확대 및 목포신항처럼 모든 입출입의항선에 30%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를 시행할 것, 군산항의 한·중 카페리 운항횟수를 현행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군산=장 현 기자

새정부 국정전략 대응

전북연구원, 릴레이 세미나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전라북도와 함께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전북도의 후속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중심으로 3차례에 걸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릴레이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13일 일자리정책, 20일 지역균형발전정책, 21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일자리정책’ 세미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더좋은 더많은 일자리 추진단’ 추진단장을 역임한 아주대학교 김용기 교수의 ‘신정부 일자리정책과 핵심과제’ 발제와 최창곤 전북대학교수의 사회로 김주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신열 전북대학교 교수, 유희숙 전북도청 경제산업국장의 토론이 있었다. /김진성 기자

천혜의 자연 환경, 힐링의 최적지
태권도인들의 수련과 전지훈련 최적지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태권도원

TPF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